

X-Y 테이블의 마찰력 특성 및 보상

The characteristics and compensation of friction of X-Y table

박 은 찬, 임 혁, 최 종 호
(Eun-chan Park, Hyuk Lim, Chong-Ho Choi)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pre-sliding friction of an X-Y table of CNC machining center at velocity reversal, and presents a simple and effective method of friction compensation based on this characteristics. At velocity reversal, a large position tracking error occurs because of the discontinuous change of fri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rrence time of maximum position tracking error and the acceleration at zero velocity is analyzed by using the spring -like friction model. Furthermore, the experimental observation verifies this relation. From this, the state transition time from pre-sliding regime into sliding regime can be predicted. Using the predicted transition time, the friction can be effectively compensated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its effectiveness.

Keywords: Pre-sliding friction, velocity reversal, friction compensation, CNC

I. 서론

마찰력은 모든 서보 모터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비선형적인 현상으로, 전체 시스템의 정밀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공작 기계를 이용하여 가공을 할 때 테이블의 이동 방향이 바뀌는 경우, 마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바뀌게 되어 큰 추종 오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마찰력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마찰력에 대한 모델링이나 보상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찰력에 의한 현상으로는 물체가 미끄러지기 전에 일어나는 작은 위치 변위 (pre-sliding displacement), 미끄러짐 이후 속도의 증가에 따른 마찰력 크기의 감소 현상 (Stribeck effect), 물체에 가해주는 시간당 힘의 변화에 따른 정지 마찰력 크기의 변화, 정지-미끄러짐 (stick-slip) 현상 등이 있다 [1]. 마찰력에 의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1] -[4].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대부분 마찰력을 속도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데, 속도가 0 일때 마찰력은 불연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서 속도가 아주 작은 경우의 마찰력에 대해 정확히 기술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 즉, 정지한 상태에서 미끄러짐이 일어나는 상태까지의 현상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마찰력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속도 역전시 발생하는 최대 위치 추종오차 발생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법에 따르면 별도의 측정 장치 없이 물체가 미끄러짐 이전 상태에서 미끄러짐 상태로 전환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고, 이 시점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마찰력을 보상할 수 있다. 2 장에서는 이러한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기준의 마찰력 모델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3 장에서는 이를 이용한 효과적인 보상 방법을 제시하며 4 장에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시한 보상 방법이 효과적임을 보인다.

II. 속도 역전시의 마찰력 특성 분석

2.1 마찰력 모델

마찰력은 미끄러짐이 일어나기 전과 이후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미끄러짐을 기준으로 두 영역으로 구분한다. 마찰력에 따른 현상들을 설명하고 정확한 마찰력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끄러짐 이전 마찰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저속에서의 정확한 추종 문제나 속도의 역전이 있는 경우 미끄러짐 이전 마찰력은 더욱 중요하다. 정지한 물체에 힘을 가하면 미끄러짐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에서도 물체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스프링처럼 미세하게 변형된다 [1]. 두 물체의 접촉면의 미소 부분을 살펴보면, 매우 불규칙한 거친 면으로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접촉면은 탄력이 있는 강모(bristle)가 서로 엇갈려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물체에 힘을 가하면 접촉하고 있는 강모가 휘어져 두 물체 사이에서 상대적인 움직임이 생기고 움직인 변위에 비례하는 마찰력이 발생한다 [3]. 물체에 가해준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경우, 접촉한 두 물체의 강모가 스프링처럼 작용하여 마찰력이 생기고, 물체에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주면 스프링이 끊어진 것과 비슷한 이치로 강모가 완전히 휘어져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이 구간에서 마찰력은 속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변위에 의존하여 변화한다.

이러한 미끄러짐 이전 상태의 마찰력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Dahl은 스프링과 같은 동적인 마찰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2]. Canudas de Wit은 정지 마찰력을 포함하고 마찰력의 비선형적인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찰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3]. 또한, Swevers는 Canudas de Wit의 모델을 보완하여 미끄러짐 이전 스프링과 같은 미끄러짐 이전 마찰력에 대한 히스테리시스